강팀 상대 경쟁력 확인… 모의고사 '일단 합격'

10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친선경기에서 오현규가 슛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홍명보호, 멕시코와 2-2 무승부
과감한 교체 카드로 공격력 키워
박용우·카스트로프 조합은 미흡
역시 손흥민… 후반 1-1 동점골
밀릴 때 수비 '썰물' 개선 나서야

홍명보호가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역전승 직전까지 갔다. 과감한 교체카드가 주효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북중미 강호 멕시코를 상대했다.

멕시코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로 한국보다 10계단 높다.

한국이 7일 2-0으로 제압한 미국보다도 두 계단 위에 있는 팀이다.

게다가 미국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여러 선수를 시험하는 중이라 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기에 홍명보호에 이번 멕시코전은 미국전보다 난도가 높은 모의고사였다.

여기에 멕시코는 7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에 그쳤기에 한국전에 전력으로 임했다. 홍 감독은 미국전과 비교해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줬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원 조합이었다.

두 경기 모두 3-4-2-1 전술로 임한 가운데, 미국전에서는 백승호(버밍엄시티)와 김진규(전북)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다.

그러나 멕시코전에서는 박용우(알아인)와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가 이 자리를 맡았다. 둘 다 백승호, 김진규보다 덜 공격적인 선수들이다. 박용우는 상대 공격을 1차 저지하는 데에 능하며, 카스트로프는 많은 활동량과 에너지, 적극적인 대인방어로 상대를 괴롭히는 스타일이다.

대표팀의 '중원 사령관'으로 활약 해 온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으로 이번 원정길에 동행하지 못한 가운데 홍 감독이 다양한 중원 조합을 실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용우-카스트로프 조합엔 합격점을 주기 어려웠다.

전반전 멕시코가 강하게 부딪쳐오자 한국은 끌려가기만 했다.

보다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로 상대 중원을 공략할 필요가 있었는데, 박용우와 카스트로프는 이런 플레이에 맞지 않았다.

황인범만큼이나 연계 플레이가 좋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지을 줄 아는 이재성(마인츠)의 빈자리도 컸다. 이재성은 미국에서 입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다.

그나마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몇 차례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오현규(헹크)에게 슈팅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홍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카드 2장을 썼다. 2선의 배준호(스토크시티)와 3선의 카스트로프 대신 손흥민(LAFC)과 김진규를 투입하는 포석으로 공격의 혈을 뚫으려 했다.

판단은 옳았다.

김진규가 활로를 뚫자 이강인까지 살아났다. '월드클래스 골잡이' 손흥민에게 멕시코 수비가 쏠리면서 공략할 공간도 많아졌다.

후반 20분 오현규가 떨군 공을 골 지역 왼쪽의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28분 양쪽 윙백을 정상빈(세인트루이스),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으로 바꾸는 교체 카드까지 쓴 가운데 후반 30분 역전골이 터졌다.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이 길게 찔러준 침투패스를 쏜살같이 달려 나간 오현규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대에 꽂았다.

홍명보호는 결국 후반 추가시간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그림 같은 왼발 감아차기 슈팅에 2-2 동점골을 내주면서 출범 첫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월드컵 16강에 오를 수준의 강팀을 상대로 끌려가던 흐름을 뒤집고 대등한 승부를 펼쳐 보였다는 점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얻은 큰 소득이라 할 만하다.

다만 황인범·이재성·손흥민 등 핵심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력이 적잖게 하락한 점, 밀릴 때 너무 수비 일변도로 대처한 것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은 "밀릴 때 수비가 너무 뒤로 빠져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하반기 추락 롯데… 원인은 물방망이

신한 SOL Bank KBO리그 2025

팀 타율 0.239… 전반 1위서 추락
부상 전준우 이탈로 타선 무너져
한화에 1-9 무너지며 4연패 수렁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후반기 추락의 원인은 다양하다.

시즌 10승을 채운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빈스 벨라스케즈를 데려온 것이 실패였다는 지적도 있고, 전반기 불펜에 쌓인 피로도가 후반기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숫자로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타격이다.

전반기 팀 타율 0.280으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며 '공포의 소총 부대' 소리를 들었던 롯데 타선은 후반기 팀 타율 0.239로 바닥을 긴다. 타선이 안 터지다 보니 투수들도 쫓기고, 경기 막판에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8월 이후 롯데의 성적은 7승 3무 20패, 승률 0.259로 같은 기간 리그 최하위다.

8월6일 부산 KIA 타이거즈전 승리로 58승 3무 45패로 승률 0.563을 찍었던 롯데의 '승패 손익'은 시즌 최다인 플러스(+) 13이었다.

그다음 날부터 롯데의 악몽 같았던 12연패가 시작됐고, 지난달 24일 창원 NC 다이노스전 승리로 연패를 끊었을 시점의 성적은 59승 5무 57패로 4위였다.

이후 5할 승률을 간신히 넘기며 버티던 롯데는 9일 부산 한화 이글스전에서 1-9로 완패하며 4연패에 빠졌다.

롯데의 성적은 이제 62승 6무 63패(승률 0.496)로 마지막 심리적 버팀목이었던 5할 승률마저 무너졌다.

아직 정규시즌은 13경기가 남았고, 6위 롯데와 5위 kt wiz의 격차는 1.5경기다.

지난달 2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6-6으로 무승부한 롯데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시 5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문제는 시나브로 젖어 든 패배 의식과 팀 분위기다. 롯데의 추락이 시작된 변곡점은 데이비슨 교체와 주장 전준우의 이탈이다.

데이비슨이야 후반기 들어 간신히 5이닝만 소화하던 터라 교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결정이다. 다만 후임자로 온 벨라스케즈가 5번의 등판에서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 한번 없이 1승 4패, 평균자책점 8.87로 무너진 게 문제다.

정신적 지주였던 전준우가 빠진 뒤 롯데 타선은 기운을 못 차린다. 후반기 롯데 타선은 타율(0.239)뿐만 아니라 홈런(18개), OPS(출루율+장타율·0.661) 모두 꼴찌다.